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Suicide Characteristics
by Age Group in Korea

송 태 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진 달 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KIHASA



현안보고서 2013-01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Suicide Characteristics
by Age Group in Korea**

발 행 일 2013년 5월
저 자 송태민·진달래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가 격 비매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26-0 93510

요약

1. 서론	1
2. 분석방법	2
3. 세대별 자살 특성	2
4.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의 자살 영향	14
5. 요약 및 정책제언	16

부록

2011년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18
----------------------------	----

Executive Summary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를 청소년 세대인 에코 세대부터 후기노인 세대의 6개의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자살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대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일 평균자살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 F 세대)와 (에코 세대, 후기노인 세대)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 세대의 남자 자살사망자가 여자 자살사망자의 3.32배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스트부머 세대가 일평균 8.03명씩 가장 많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11년 자살률의 증가는 에코 세대가 5.12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자살자의 지역별 특성은 남자는 강원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네트워크 구축, 전문상담인력(Gate Keeper) 양성,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모방자살(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자살 보도에 대한 자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빅 데이터 분석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속에 자살에 의한 사망률(자살률)은 2010년 인구 10명당 33.5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자살률 12.8명에 비해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201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1.8% 증가하여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청소년과 노인자살률의 증가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자살의 원인은 계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학교폭력과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으며, 대학생은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대와 함께 생활고 및 취업란 등의 경제문제와 학업문제 등으로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청소년 통계조사에서 청소년의 8.8%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베이비붐 세대는 1998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노후준비도 없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조기은퇴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은 신체적 질병이나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등으로 우울이 증가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³⁾. 2010년 통계청 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7.1%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모든 계층에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계층별로 구분하여 자살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의 자살특성 연구는 청소년, 베이비부머, 노인의 세 계층의 자살 특성 분석에 국한됨에 따라 청소년과 베이비부머 사이의 세대인 포스트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와 노인 세대 사이의 F(Forgotten) 세대에 대한 자살특성에 대한 분석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를 청소년 세대인 에코 세대부터 후기노인 세대의 6개의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자살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살예방 대책의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1) 장영식(2012. 11.23).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통계청(2012). 청소년통계.

3) 송태민(2012. 3. 8).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세대의 자살 특성 분석.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우리나라 전 세대의 자살 특성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다년도 (2001~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에코 세대는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인 1992년생부터 1979년까지 14세 연령집단으로 정의하였다⁵⁾.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사이 세대인 포스트부머 세대는 1978년생부터 1964년까지 15세 연령 집단으로 정의하였다⁶⁾. 베이비붐 세대는 1963년생부터 1955년생까지 9세 연령집단으로 정의하였다. F (Forgotten) 세대는 2011년 현재 1954년생부터 1947년생까지 8세 연령집단으로 정의하였다⁷⁾. 전기노인 세대는 연도별 65세에서 74세 연령집단이며 후기노인 세대는 75세 이상 연령집단으로 정의하였다⁸⁾. 세대별 자살률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 10만명당 연도별 자살률을 산출하였다.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의 자살 영향 분석은 자살사망자의 사망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0일과 이후 30일, 60일의 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⁹⁾.

3. 세대별 자살 특성

가. 세대별 사망원인

2011년 에코 세대와 포스트부머 세대 남자의 사망구성비는 자살이 1위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모든 세대 남자의 사망구성비는 악성신생물이 1위로 나타났으며 자살은 10위 이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부머 세대 여자의 사망구성비는 베이비붐 세대 여자와 같이 악성신생물이 1위 자살이 2위로 나타났다(표 1).

5) 통계청(2012. 8. 2 보도자료).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6) '어느날 갑자기 포스트부머가 되었다(2012)'와 '2차 베이비부머(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에서 명명

7) 헤럴드 경제(2012)에서 F 세대는 잊혀진(Forgotten) 세대로 1966년생부터 1974년생 사이의 세대로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에 낀 세대로 정의하였다.

8) 세대별 자살자는 에코 세대는 2001년(9~22세)~2011년(19~32세)가 대상, 포스트부머 세대는 2001년(23~37세)~2011년 (33~47세)가 대상, 베이비붐 세대는 2001년(38~46세)~2011년(48~56세)가 대상, F 세대는 2001년(47~64세)~2011년(57~64세)가 대상, 전기노인 세대는 연도별 65~74세가 대상, 후기노인 세대는 연도별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구분함.

9)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유명연예인의 자살 사건 후 사망한 월을 기준으로 이전 월과 이후 월에 대한 자살자 수의 증감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월 중순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월 중순 이전과 이후의 자살자 수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 1) 2011년 세대별 사망원인 구성비

(단위: %)

성별	순위	एको세대		포스트부머세대		베이비붐세대		F세대		전기노인세대		후기노인세대	
		자살	타살	신생물암	25.1	신생물암	34.9	신생물암	42.6	신생물암	38.6	신생물암	20.5
전체	1위	자살	타살	신생물암	25.1	신생물암	34.9	신생물암	42.6	신생물암	38.6	신생물암	20.5
	2위	운수사고	자살	자살	24	자살	11.6	심장질환	7.7	뇌혈관질환	10.1	뇌혈관질환	12.2
	3위	신생물암	11.6	간질환	7.0	간질환	8.0	뇌혈관질환	7.3	심장질환	9.0	심장질환	11.8
	4위	심장질환	3.1	운수사고	6.3	심장질환	7.0	자살	7.0	당뇨	5.6	노쇠	11.2
	5위	신경계통질환	2.4	심장질환	6.1	뇌혈관질환	6.1	간질환	4.6	자살	4.2	폐렴	5.2
	6위	의도미확인사건	2.2	뇌혈관질환	4.9	운수사고	4.1	당뇨	4.1	운수사고	2.4	당뇨	4.4
	7위	뇌혈관질환	1.8	의도미확인사건	1.9	당뇨	3.4	운수사고	3.3	만성하기도질환	2.4	만성하기도질환	4.1
	8위	악사	1.4	추락	1.7	의도미확인사건	1.6	신경계통질환	1.6	간질환	2.3	신경계통질환	3.3
	9위	추락	1.3	당뇨	1.6	추락	1.6	신장기능상실	1.5	폐렴	2.3	고혈압성질환	3.2
	10위	타살	1.2	신경계통질환	1.4	신경계통질환	1.2	폐렴	1.2	신경계통질환	2.2	치매	2.9
남자	1위	자살	43.0	자살	23.8	신생물암	30.6	신생물암	41.0	신생물암	40.5	신생물암	26.9
	2위	운수사고	18.1	신생물암	19.4	자살	11.6	심장질환	8.0	뇌혈관질환	9.1	뇌혈관질환	11.3
	3위	신생물암	9.6	간질환	8.3	간질환	9.5	자살	7.3	심장질환	8.3	심장질환	9.7
	4위	심장질환	3.7	운수사고	7.5	심장질환	7.9	뇌혈관질환	6.9	당뇨	5.0	노쇠	8.4
	5위	신경계통질환	2.7	심장질환	7.3	뇌혈관질환	5.4	간질환	5.5	자살	4.6	만성하기도질환	5.7
	6위	의도미확인사건	2.3	뇌혈관질환	4.7	운수사고	4.4	당뇨	4.0	만성하기도질환	2.8	폐렴	5.5
	7위	악사	2.0	추락	2.2	당뇨	3.6	운수사고	3.4	간질환	2.7	당뇨	4.1
	8위	뇌혈관질환	1.7	의도미확인사건	2.2	추락	2.0	운수사고	1.4	운수사고	2.5	신경계통질환	2.7
	9위	추락	1.6	당뇨	1.5	당뇨	1.7	신경계통질환	1.3	폐렴	2.5	자살	2.4
	10위	타살	1.2	신경계통질환	1.3	신경계통질환	1.2	신장기능상실	1.3	신경계통질환	1.8	치매	2.1
여자	1위	자살	51.1	신생물암	37.8	신생물암	47.7	신생물암	47.0	신생물암	34.7	신생물암	15.9
	2위	신생물암	15.1	자살	24.4	자살	11.5	뇌혈관질환	8.5	뇌혈관질환	12.0	심장질환	13.4
	3위	운수사고	7.0	뇌혈관질환	5.5	뇌혈관질환	8.0	심장질환	6.7	심장질환	10.3	노쇠	13.2
	4위	뇌혈관질환	2.0	간질환	3.9	심장질환	4.3	자살	6.3	당뇨	6.7	뇌혈관질환	12.9
	5위	의도미확인사건	2.0	운수사고	3.6	간질환	3.6	당뇨	4.4	자살	3.4	폐렴	5.0
	6위	심장질환	1.9	심장질환	3.6	운수사고	3.2	운수사고	3.0	신경계통질환	2.9	당뇨	4.6
	7위	신경계통질환	1.8	당뇨	1.6	당뇨	2.8	신경계통질환	2.4	신장기능상실	2.3	고혈압성질환	4.1
	8위	간질환	1.6	신경계통질환	1.6	신경계통질환	1.6	간질환	2.2	운수사고	2.3	신경계통질환	3.6
	9위	전신결합조직장애	1.3	타살	1.5	신장기능상실	1.6	신장기능상실	2.1	폐렴	2.1	치매	3.6
	10위	타살	1.2	의도미확인사건	1.4	의도미확인사건	1.2	바이러스간염	1.2	노쇠	2.0	만성하기도질환	2.9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나. 세대별 자살자의 일반적인 특성

모든 세대에서 남자 자살사망자가 여자 자살사망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F 세대는 3.32배, 베이비붐 세대 2.92배, 전기노인 세대 2.25배, 포스트부머 세대 1.89배, 에코 세대 1.21배, 후기노인 세대 1.15배 순으로 남자 자살사망자가 여자 자살사망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1년부터 2011까지 포스트부머 세대는 매년 평균 2,927명(일평균 8.03명), 베이비붐 세대는 매년평균 2,204명(일평균 6.07명), F 세대는 매년평균 2,156명(일평균 5.94명), 전기노인 세대는 매년평균 1,762명(일평균 4.96명), 후기노인 세대는 매년평균 1,507명(일평균 4.33명), 에코 세대는 매년평균 1,411명(일평균 4.18명) 씩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 세대, 포스트부머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고등학교 학력의 자살자가 많은 반면, F 세대, 전기노인 세대, 후기노인 세대는 초등학교 학력의 자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 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살사망이 높은 반면 후기노인 세대는 사별자의 자살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 세대와 노인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농림, 어업 종사자의 자살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충제에 의한 사망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목매달림으로 인한 사망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증가하였다. 투신에 의한 사망은 에코 세대가 다른 세대의 평균(12.3%)에 비해 1.93배(2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전체 세대 자살자의 일반적인 특성(2001~2011년)

(단위: 명(%))

구분	특성	에코세대	포스트부머 세대	베이비붐 세대	F세대	전기노인 세대	후기노인 세대
성별	남자	8,489 (54.7)	21,055 (65.4)	18,059 (74.5)	18,221 (76.8)	13,433 (69.3)	8,855 (53.4)
	여자	7,030 (45.3)	11,142 (34.6)	6,181 (25.5)	5,491 (23.2)	5,953 (30.7)	7,720 (46.6)
교육정도	초등학교이하	528 (3.4)	1,810 (5.7)	5,807 (24.3)	10,411 (44.4)	12,537 (65.3)	13,678 (83.5)
	중학교	2,189 (14.2)	4,475 (14.0)	5,694 (23.8)	5,000 (21.3)	2,853 (14.9)	1,245 (7.6)
	고등학교	7,630 (49.5)	16,942 (53.2)	9,057 (37.8)	6,053 (25.8)	2,801 (14.6)	981 (6.0)
	대학이상	5,054 (32.8)	8,635 (27.1)	3,385 (14.1)	1,976 (8.4)	998 (5.2)	471 (2.9)
혼인상태	미혼	13,912 (89.9)	14,024 (43.8)	3,403 (14.1)	1,049 (4.5)	247 (1.3)	152 (0.9)
	유배우	1,185 (7.7)	12,861 (40.2)	14,587 (60.6)	16,682 (70.9)	12,678 (66.0)	6,270 (38.2)

구분	특성	에코세대	포스트부머 세대	베이비붐 세대	F세대	전기노인 세대	후기노인 세대
	이혼	340 (2.2)	4,730 (14.8)	5,215 (21.7)	3,546 (15.1)	974 (5.1)	291 (1.8)
	사별	38 (0.2)	384 (1.2)	867 (3.6)	2,237 (9.5)	5,304 (27.6)	9,682 (59.1)
직업	관리자	61 (0.4)	408 (1.3)	366 (1.5)	236 (1.0)	67 (0.3)	19 (0.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89 (3.8)	1,731 (5.4)	1,247 (5.1)	819 (3.5)	169 (0.9)	53 (0.3)
	사무종사자	1,523 (9.8)	3,340 (10.4)	1,538 (6.3)	788 (3.3)	122 (0.6)	30 (0.2)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113 (7.2)	4,087 (12.7)	3,509 (14.5)	2,380 (10.0)	465 (2.4)	94 (0.6)
	농림어업종사자	91 (0.6)	1,164 (3.6)	1,928 (8.0)	3,401 (14.3)	4,018 (20.7)	2,506 (15.1)
	기능원/기능종사자	246 (1.6)	1,216 (3.8)	1,118 (4.6)	730 (3.1)	150 (0.8)	35 (0.2)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92 (0.6)	671 (2.1)	629 (2.6)	391 (1.6)	61 (0.3)	8 (0.0)
	단순노무 종사자	244 (1.6)	1,239 (3.8)	1,432 (5.9)	1,252 (5.3)	427 (2.2)	139 (0.8)
	학생/가사/무직	10,556 (68.0)	17,275 (53.7)	11,784 (48.6)	13,205 (55.7)	13,465 (69.5)	13,283 (80.1)
	미상(군인병사 제외)	1,004 (6.5)	1,066 (3.3)	689 (2.8)	510 (2.2)	442 (2.3)	408 (2.5)
사망원인	살충제	807 (5.2)	4,477 (13.9)	5,116 (21.1)	6,887 (29.0)	7,319 (37.8)	6,157 (37.1)
	목메달립	8,332 (53.7)	16,643 (51.7)	11,646 (48.0)	10,165 (42.9)	7,203 (37.2)	6,172 (37.2)
	투신	3,696 (23.8)	4,772 (14.8)	2,952 (12.2)	2,389 (10.1)	2,139 (11.0)	2,246 (13.6)
	기타	2,684 (17.3)	6,305 (19.6)	4,526 (18.7)	4,271 (18.0)	2,725 (14.1)	2,000 (12.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세대별에 따라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부머 세대의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8.0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는 사후검증 결과 집단 1(포스트부머 세대), 집단 2(베이비붐 세대, F 세대), 집단 3(전기노인 세대), 집단 4(에코 세대, 후기노인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와 F 세대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코 세대와 후기노인 세대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3).

〈표 3〉 세대별 하루 자살자 수 평균의 차이 검증

종속변수	세대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Tukey, Scheffe
일일자살자수	에코세대(a)	4.18	2.89	899.765/.000***	b>c,d>e>a,f
	포스트부머세대(b)	8.03	3.92		
	베이비붐세대(c)	6.07	2.99		
	F세대(d)	5.94	2.77		
	전기노인세대(e)	4.96	2.69		
	후기노인세대(f)	4.33	2.44		

*** p<.01

다. 연도별 자살 특성

2001년과 2011년 자살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에코 세대가 4.79명→24.54명으로 5.12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포스트부머 세대가 13.70명→32.65명으로 2.38배, 베이비붐 세대가 18.27명→40.56명으로 2.22배, 전기노인 세대가 33.45명→64.47명으로 1.93배, F 세대가 24.08명→45.42명으로 1.89배, 후기노인 세대가 55.39명→99.18명으로 1.79배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에코세대는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대와 생활고 및 취업란 등의 경제문제, 학업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포스트부머 세대, 베이비붐 세대, F 세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살률이 증가하고 2006년부터 감소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기노인 세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기노인 세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 세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자살률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자살률이 증가하여 다른 세대와 같이 자살률의 증가가 경제적 상황에 따른 증가라기 보다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1, 그림 1-2)¹¹⁾.

10) <http://ask.nate.com/qna/view.html?n=8975979>, <http://wbkn.tv/?bid=news&m=bbs&uid=2436>, 2007년 청소년백서(p242), <http://news.donga.com/3/all/20110217/34892179/1> 등

11) 박형민(2010). 자살 차악의 선택. 이학사.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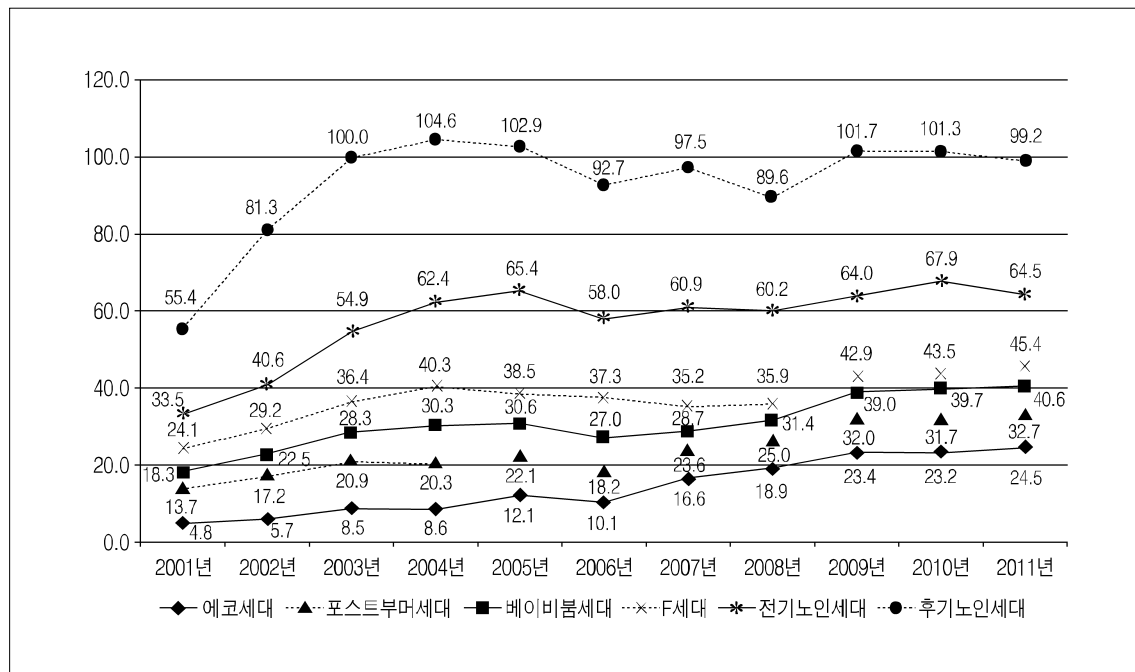
〈표 4〉 2001년과 2011년 세대별 자살률 증가

(단위: 배)

세대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1/2001	2011/2001	2011/2001
एको세대	5.12	5.27	4.92
포스트부머세대	2.38	2.36	2.44
베이비붐세대	2.22	2.22	2.25
F 세대	1.89	1.86	2.05
전기노인세대	1.93	1.98	1.62
후기노인세대	1.79	1.90	1.58

〔그림 1〕 연도별 자살률 비교: 전체(2001~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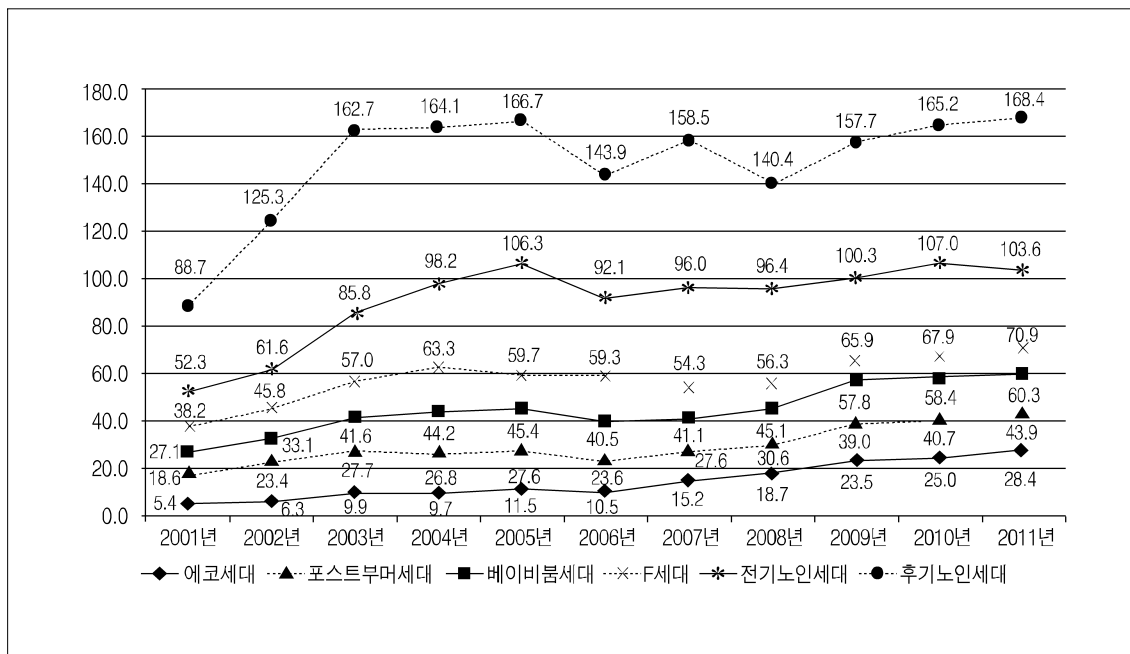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그림 1-1] 연도별 자살률 비교: 남자(2001~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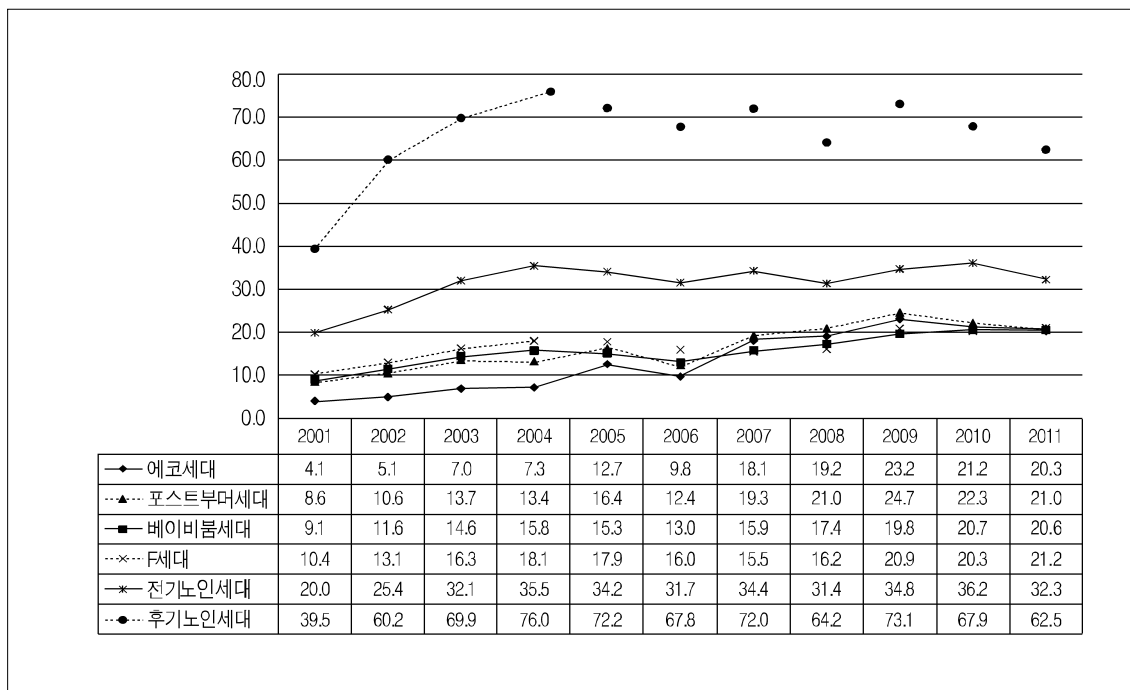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그림 1-2] 연도별 자살률 비교: 여자(2001~2011년)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라. 지역별 자살 특성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자살자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강원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여자는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 세대, 포스트 부머 세대, 베이비붐 세대, F 세대 남자 사망자는 강원도가 가장 높으며, 노인 세대의 남자 사망자는 모두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 세대의 여자 사망자는 제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스트부머 세대와 후기노인 세대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 F 세대, 전기노인 세대 여자 사망자 모두 충청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림 2, 그림 2-1, 그림 2-2).

〈표 5〉 지역별 자살률(2001~2011년)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구분		에코세대	포스트부머세대	베이비붐세대	F세대	전기노인세대	후기노인세대	계
전체	서울	13.2	19.2	23.2	27.0	46.2	87.1	23.1
	부산	14.0	25.2	30.9	36.7	56.6	87.5	29.9
	대구	13.2	23.0	28.9	33.3	48.4	79.4	26.7
	인천	14.4	23.4	29.7	39.1	67.4	112.7	29.7
	광주	14.4	22.6	26.8	30.4	43.9	60.8	24.6
	대전	14.2	23.1	29.6	34.1	61.9	104.0	28.0
	울산	12.4	20.4	24.8	36.7	67.3	86.6	25.2
	경기도	13.3	21.3	29.3	38.0	66.0	119.2	28.7
	강원도	17.0	32.5	45.1	50.3	79.1	129.8	44.3
	충북	15.5	28.6	40.4	44.3	70.4	104.5	37.7
	충남	15.8	31.7	44.5	47.8	74.1	120.6	42.7
	전북	15.8	28.9	34.7	38.8	59.5	87.5	35.6
	전남	19.1	28.5	37.4	35.2	39.9	53.2	32.8
	경북	15.5	28.3	35.5	38.5	53.8	81.6	34.5
	경남	15.3	25.8	33.3	40.4	66.3	92.6	33.7
	제주도	16.3	28.2	39.1	44.7	51.9	49.2	32.8
남자	서울	13.7	23.7	35.1	41.5	70.1	135.6	30.6
	부산	14.2	32.6	47.4	60.4	92.6	155.0	42.0
	대구	12.9	29.4	43.6	51.4	76.9	117.5	35.6
	인천	14.8	30.6	43.5	60.1	111.5	180.5	39.9
	광주	14.8	29.2	40.2	46.9	65.9	105.0	32.8
	대전	13.8	29.3	43.1	51.2	95.4	162.7	36.5
	울산	12.7	24.6	35.7	57.5	107.8	160.9	33.3
	경기도	13.7	26.5	41.3	58.3	103.1	181.2	37.5
	강원도	17.5	42.0	66.3	81.8	129.4	201.5	60.7
	충북	17.5	37.4	59.9	69.0	110.2	165.0	51.4
	충남	18.3	40.4	63.4	72.7	117.0	187.1	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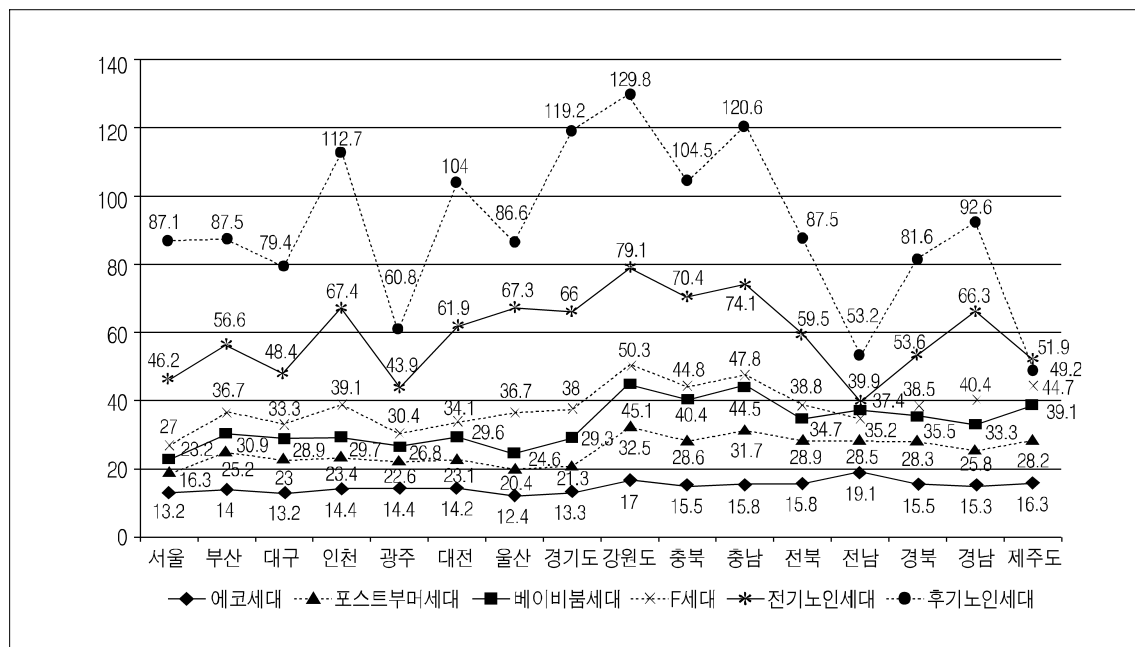
10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구분		에코세대	포스트부머세대	베이비붐세대	F세대	전기노인세대	후기노인세대	계
	전북	18.7	38.5	53.2	63.0	95.5	155.9	50.5
	전남	21.6	37.9	54.9	56.8	65.1	91.3	46.4
	경북	16.7	36.6	51.1	59.1	87.6	129.7	46.6
	경남	16.1	33.6	48.0	64.5	110.9	152.8	45.5
	제주도	15.7	38.5	57.3	69.7	83.0	88.4	45.3
여자	서울	12.8	14.5	11.9	13.0	25.4	62.4	15.8
	부산	13.8	17.8	15.4	13.8	27.8	56.5	18.2
	대구	13.6	16.7	14.3	16.1	26.6	61.2	18.1
	인천	14.1	15.9	14.9	17.7	33.9	79.6	19.3
	광주	14.0	15.9	13.5	14.4	26.6	40.0	16.5
	대전	14.6	16.8	15.8	16.8	35.6	74.3	19.6
	울산	12.2	16.0	13.0	13.4	35.3	57.0	16.6
	경기도	12.8	15.9	16.2	17.8	36.8	86.8	19.9
	강원도	16.4	22.3	22.7	20.4	39.5	91.8	27.8
	충북	13.2	19.0	19.4	20.5	40.3	73.0	24.0
	충남	12.9	21.7	23.8	24.0	41.3	83.8	28.0
	전북	12.6	18.6	16.0	16.4	33.3	52.8	21.2
	전남	16.1	18.0	18.8	15.3	22.0	34.9	19.7
	경북	14.0	19.2	19.3	19.3	29.2	57.0	22.6
	경남	14.3	17.3	17.6	17.5	35.7	65.1	21.8
	제주도	16.9	17.1	19.8	20.4	29.1	36.1	20.6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그림 2] 지역별 자살률 비교: 전체(2001~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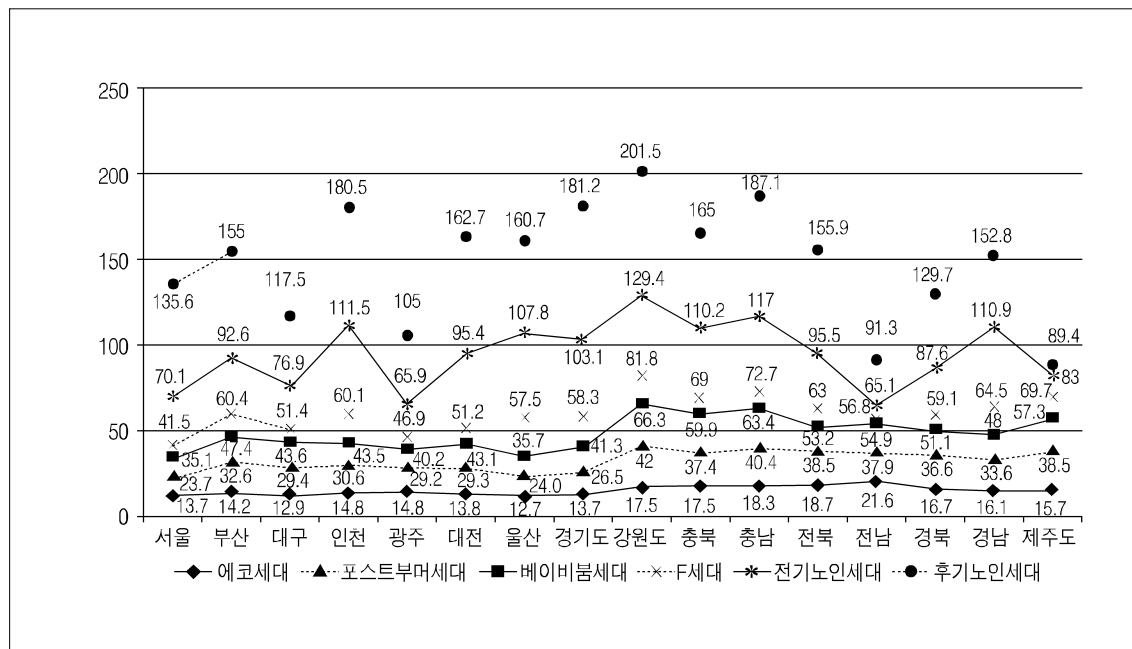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그림 2-1] 지역별 자살률 비교: 남자(2001~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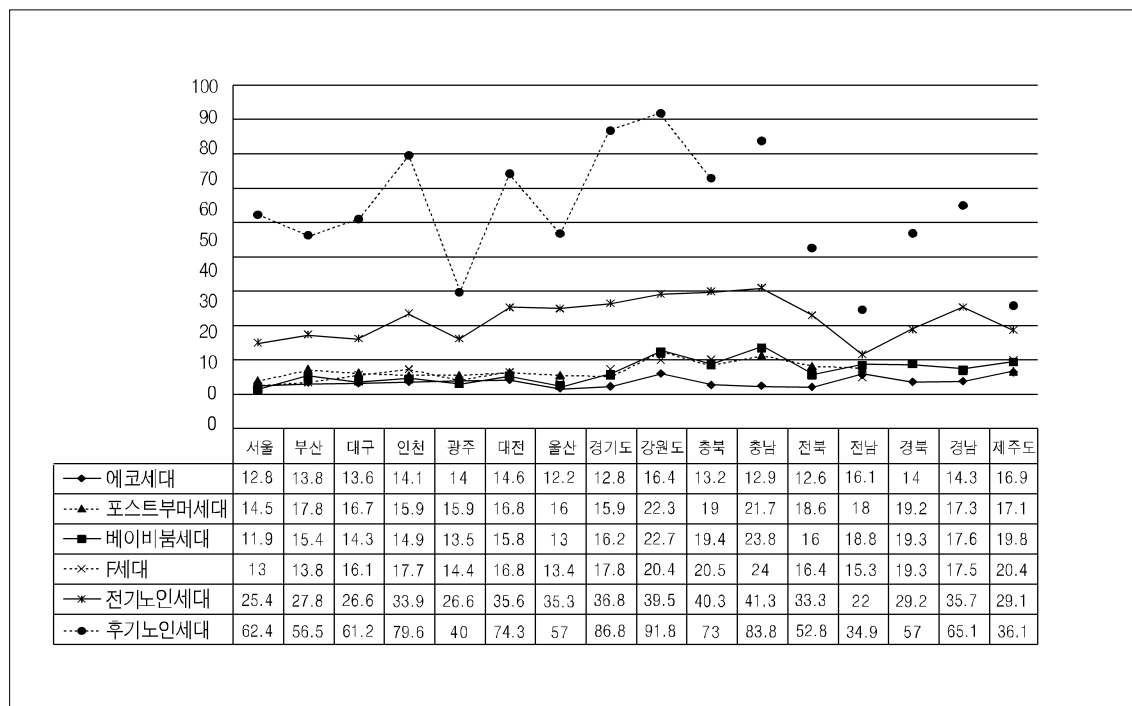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그림 2-2] 지역별 자살률 비교: 여자(2001~2011년)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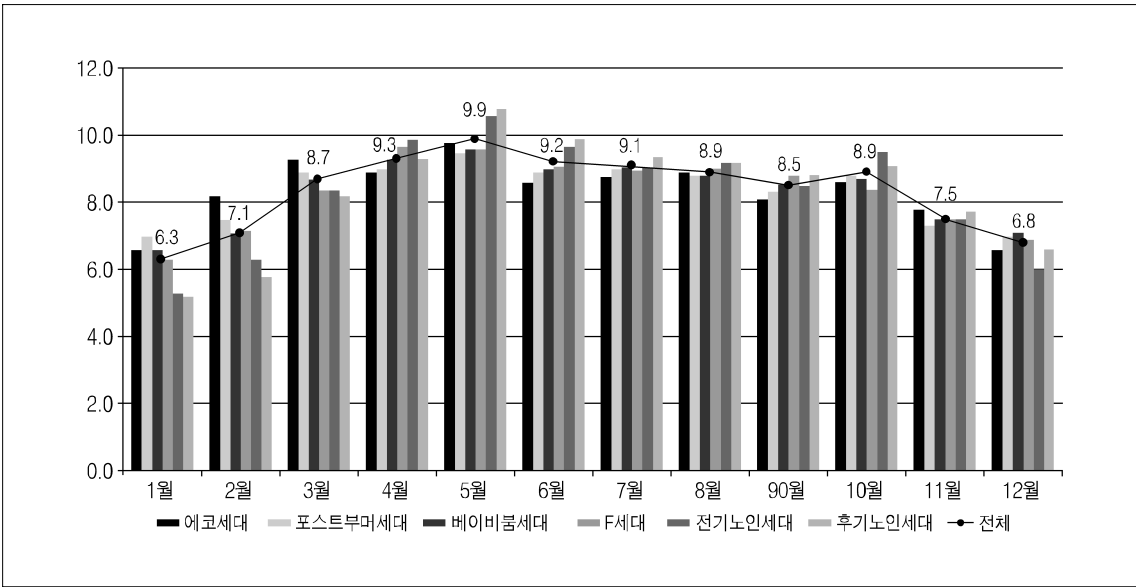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마. 월별 자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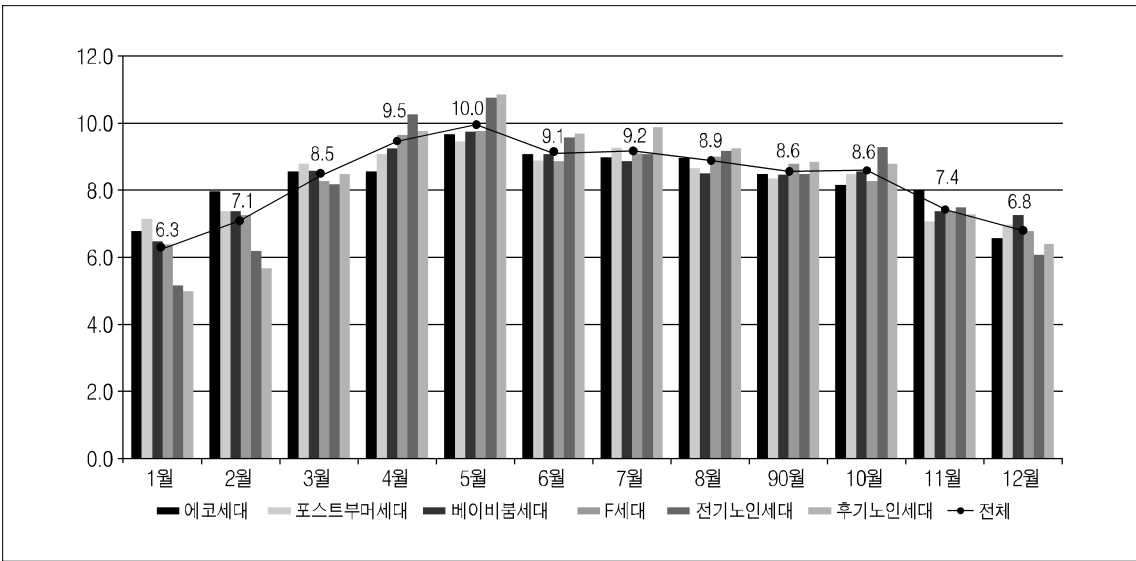
모든 세대에서 남자는 5월에 자살자가 가장 많으며 에코세대의 여자는 3월에 자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스트부머 세대와 F 세대의 여자는 4월에 자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1, 그림 3-2).

[그림 3] 월별 자살률 비교: 전체(2001~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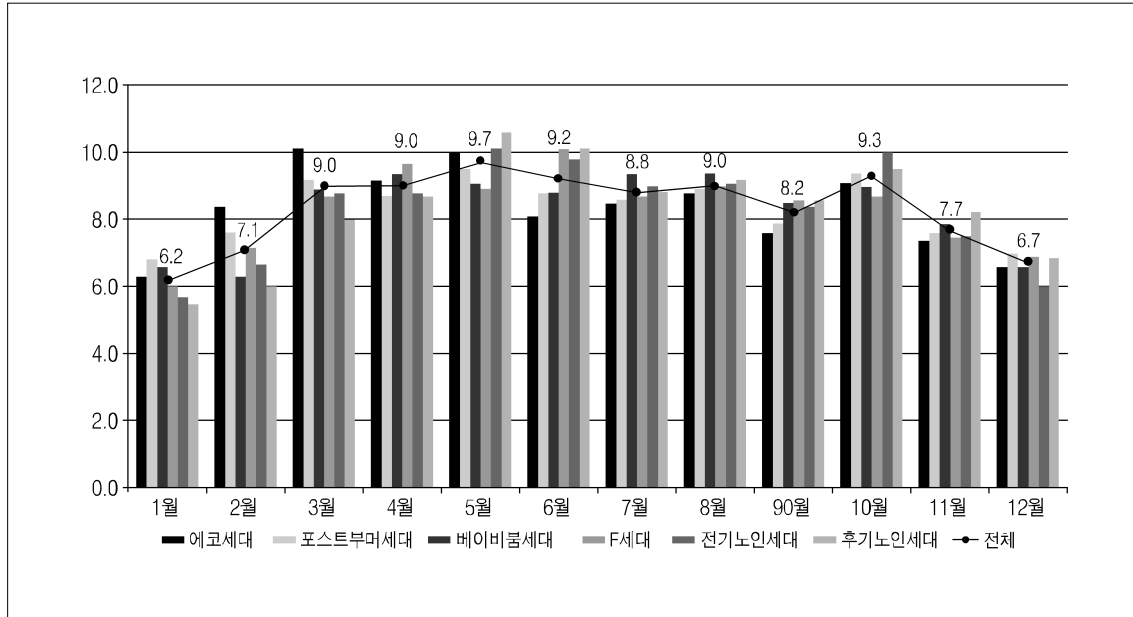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그림 3-1] 월별 자살률 비교: 남자(2001~2011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그림 3-2] 월별 자살률 비교: 여자(2001~2011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바. 요일별 자살 특성

모든 세대에서 남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자살 사망자가 많으며, 에코 세대의 여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자살사망자가 많고, 베이비붐 세대의 여자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자살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요일별 자살자 수 구성비(2001~2011년)

(단위: 명(%))

		에코세대	포스트부머세대	베이비붐세대	F세대	전기노인세대	후기노인세대
전체	월요일	2,420 (15.6)	5,049 (15.7)	3,825 (15.8)	3,605 (15.2)	2,947 (15.2)	2,566 (15.5)
	화요일	2,239 (14.4)	4,971 (15.4)	3,630 (15)	3,562 (15.0)	2,955 (15.2)	2,431 (14.7)
	수요일	2,266 (14.6)	4,563 (14.2)	3,519 (14.5)	3,503 (14.8)	2,744 (14.2)	2,399 (14.5)
	목요일	2,253 (14.5)	4,605 (14.3)	3,527 (14.6)	3,492 (14.7)	2,707 (14)	2,368 (14.3)
	금요일	2,149 (13.8)	4,532 (14.1)	3,429 (14.1)	3,315 (14)	2,810 (14.5)	2,298 (13.9)
	토요일	2,082 (13.4)	4,225 (13.1)	3,092 (12.8)	3,148 (13.3)	2,551 (13.2)	2,233 (13.5)
	일요일	2,110 (13.6)	4,252 (13.2)	3,218 (13.3)	3,087 (13.0)	2,672 (13.8)	2,280 (13.8)

		예코세대	포스트부머세대	베이비붐세대	F세대	전기노인세대	후기노인세대
남자	월요일	1,314 (15.5)	3,346 (15.9)	2,882 (16.0)	2,777 (15.2)	2,046 (15.2)	1,361 (15.4)
	화요일	1,254 (14.8)	3,265 (15.5)	2,786 (15.4)	2,782 (15.3)	2,024 (15.1)	1,302 (14.7)
	수요일	1,234 (14.5)	2,977 (14.1)	2,622 (14.5)	2,675 (14.7)	1,893 (14.1)	1,270 (14.3)
	목요일	1,212 (14.3)	2,996 (14.2)	2,598 (14.4)	2,720 (14.9)	1,868 (13.9)	1,247 (14.1)
	금요일	1,181 (13.9)	2,934 (13.9)	2,527 (14)	2,559 (14.0)	1,978 (14.7)	1,226 (13.8)
	토요일	1,132 (13.3)	2,759 (13.1)	2,239 (12.4)	2,371 (13.0)	1,754 (13.1)	1,198 (13.5)
	일요일	1,162 (13.7)	2,778 (13.2)	2,405 (13.3)	2,337 (12.8)	1,870 (13.9)	1,251 (14.1)
여자	월요일	1,106 (15.7)	1,703 (15.3)	943 (15.3)	828 (15.1)	901 (15.1)	1,205 (15.6)
	화요일	985 (14)	1,706 (15.3)	844 (13.7)	780 (14.2)	931 (15.6)	1,129 (14.6)
	수요일	1,032 (14.7)	1,586 (14.2)	897 (14.5)	828 (15.1)	851 (14.3)	1,129 (14.6)
	목요일	1,041 (14.8)	1,609 (14.4)	929 (15)	772 (14.1)	839 (14.1)	1,121 (14.5)
	금요일	968 (13.8)	1,598 (14.3)	902 (14.6)	756 (13.8)	832 (14.0)	1,072 (13.9)
	토요일	950 (13.5)	1,466 (13.2)	853 (13.8)	777 (14.2)	797 (13.4)	1,035 (13.4)
	일요일	948 (13.5)	1474 (13.2)	813 (13.2)	750 (13.7)	802 (13.5)	1,029 (13.3)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년도(2001~2011년) 자료

4.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의 자살 영향

유명 여성 연예인의 자살사건 직후 1개월 간 자살자 수의 증가는 자살직전 1개월 자살자 수에 비해 전 세대 계층의 남성은 1.57배, 여성은 2.06배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코 세대의 여성에게는 2.94배, 포스트부머 세대의 여성에게는 2.77배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명 남성 연예인의 자살사건은 예코 세대와 포스트부머 세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연령 계층별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살사건은 전 세대 계층에 자살사건 직후 첫 달에 1.76배, 둘째 달에 1.89배 증가하여 대학생의 잇따른 자살의 영향은 전 세대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생의 자살사건은 F 세대 남성과 에코 세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표 7〉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의 자살 영향

(단위: 명)

유명 연예인과 대학생		남자					여자					전체				
		1 ¹	2 ²	3 ³	2/1 ⁴	3/1 ⁵	1 ¹	2 ²	3 ³	2/1 ⁴	3/1 ⁵	1 ¹	2 ²	3 ³	2/1 ⁴	3/1 ⁵
여성연예인1 (2005. 2. 22)	에코 ^a	30	82	64	2.73	2.13	31	104	84	3.35	2.71	61	186	148	3.05	2.43
	포스트부머 ^b	111	200	195	1.80	1.76	50	136	102	2.72	2.04	161	336	297	2.09	1.84
	베이비부머 ^c	126	185	155	1.47	1.23	31	50	51	1.61	1.65	157	235	206	1.50	1.31
	F세대 ^d	129	169	204	1.31	1.58	36	61	62	1.69	1.72	165	230	266	1.39	1.61
	전기노인 ^e	52	95	154	1.83	2.96	24	53	53	2.21	2.21	76	148	207	1.95	2.72
	후기노인 ^f	39	65	74	1.67	1.90	32	46	58	1.44	1.81	71	111	132	1.56	1.86
여성연예인2 (2008.10.2)	에코 ^a	84	126	107	1.50	1.27	73	185	114	2.53	1.56	157	311	221	1.98	1.41
	포스트부머 ^b	181	247	201	1.36	1.11	97	274	154	2.82	1.59	278	521	355	1.87	1.28
	베이비부머 ^c	144	182	181	1.26	1.26	56	108	59	1.93	1.05	200	290	240	1.45	1.20
	F세대 ^d	114	179	123	1.57	1.08	32	58	41	1.81	1.28	146	237	164	1.62	1.12
	전기노인 ^e	113	149	147	1.32	1.30	58	74	51	1.28	0.88	171	223	198	1.30	1.16
	후기노인 ^f	75	74	68	0.99	0.91	49	91	49	1.86	1.00	124	165	117	1.33	0.94
남성연예인 (2010. 6.30)	에코 ^a	107	142	136	1.33	1.27	71	112	92	1.58	1.30	178	254	228	1.43	1.28
	포스트부머 ^b	208	261	221	1.25	1.06	126	147	129	1.17	1.02	334	408	350	1.22	1.05
	베이비부머 ^c	188	189	183	1.01	0.97	38	77	68	2.03	1.79	226	266	251	1.18	1.11
	F세대 ^d	123	147	121	1.20	0.98	49	38	41	0.78	0.84	172	185	162	1.08	0.94
	전기노인 ^e	159	168	144	1.06	0.91	63	84	58	1.33	0.92	222	252	202	1.14	0.91
	후기노인 ^f	120	132	111	1.10	0.93	106	69	74	0.65	0.70	226	201	185	0.89	0.82
대학생 (2011.3.20)	에코 ^a	64	120	132	1.88	2.06	46	97	81	2.11	1.76	110	217	213	1.97	1.94
	포스트부머 ^b	136	227	278	1.67	2.04	64	109	132	1.70	2.06	200	336	410	1.68	2.05
	베이비부머 ^c	112	186	200	1.66	1.79	38	65	62	1.71	1.63	150	251	262	1.67	1.75
	F세대 ^d	61	122	125	2.00	2.05	23	42	35	1.83	1.52	84	164	160	1.95	1.90
	전기노인 ^e	86	156	166	1.81	1.93	31	50	73	1.61	2.35	117	206	239	1.76	2.04
	후기노인 ^f	72	108	117	1.50	1.63	52	78	86	1.50	1.65	124	186	203	1.50	1.64

1. 해당 유명 연예(인)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전 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2. 해당 유명 연예(인)의 사망일 다음날(사망일+1일)로부터 30일 이후 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3. 해당 유명 연예(인)의 사망일 1개월 후(사망일+31일)로부터 30일 이후 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4. ((사망일+1)+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사망일-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5. ((사망일+31)+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사망일-30일)기간 동안의 자살자 수
- a. 에코 세대의 자살자 수, b. 포스트부머 세대의 자살자 수, c.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자 수 d. F 세대의 자살자 수, e. 전기노인 세대의 자살자 수
- f. 후기노인 세대의 자살자 수

5.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다년도(2001년~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전 세대를 에코세대부터 후기노인세대의 6개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자살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일 평균자살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 F 세대)와 (에코 세대, 후기노인 세대)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 세대의 남자 자살사망자가 여자 자살사망자의 3.32배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부머 세대가 일평균 8.03명씩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충제에 의한 사망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증가하였고, 목매달림으로 인한 사망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에 의한 사망은 에코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평균 1.9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1년과 2011년 자살률의 증가는 에코 세대가 5.12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에코 세대는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대 등으로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포스트부머 세대, 베이비붐 세대, F 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노인 세대는 2009년 이후부터 자살률이 증가하여 자살률의 증가가 다른 계층과 같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증가보다는 지속적 증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살자의 지역별 특성은 남자는 강원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세대의 남자 사망자는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에서 남자는 5월에 자살자가 가장 많으며 여자는 3월에 자살자가 많고 포스트부머 세대와 F 세대 여자는 4월에 자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서 남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자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대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¹²⁾.

첫째,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과 더불어 수립된 ‘자살예방대책 5개년 기본계획’ 상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

12) 본 고의 정책제언은 ‘송태민(2012. 3. 8).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세대의 자살 특성 분석.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안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여야 한다. 그리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네트워크 구축, 전문상담인력(Gate Keeper) 양성,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방자살(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 자살 보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살에 대한 자체적인 보도 권고안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자살보도를 자제하고 보도 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자살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정부, 언론, 미디어 소비자들이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¹³⁾.

셋째, 자살예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위험자의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을 촉진하며,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살예방법의 포괄적인 법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직(가칭: 자살예방사업지원단)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자살예방사업지원단’은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예방 사업을 크게 사업, 교육, 홍보, 제도개선의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사업의 기획과 평가를 통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는 65세에 진입, 에코세대는 30대 전후로 진입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살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 및 20대, 30대 인구 자살률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의 계층 이동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오프라인 조사 자료나 온라인 채널에서 생산·저장된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자살 요인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핀란드가 오프라인 빅 데이터(심리적 부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13) 김여라(2012. 11. 28). 자살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부록

2011년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표 1〉 2011년 세대별 자살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

구분	특성	예코세대	포스트부머 세대	베이비붐 세대	F세대	전기노인 세대	후기노인 세대
성별	남자	1,491 (60.4)	2,788 (68.6)	2,168 (74.8)	1,358 (76.1)	1,620 (72.5)	1,276 (58.8)
	여자	977 (39.6)	1,278 (31.4)	731 (25.2)	426 (23.9)	616 (27.5)	894 (41.2)
교육정도	초등학교이하	51 (2.1)	198 (5.0)	670 (23.4)	694 (39.6)	1,299 (58.8)	1,618 (75.6)
	중학교	208 (8.5)	477 (11.9)	639 (22.3)	385 (22.0)	375 (17.0)	226 (10.6)
	고등학교	1,165 (47.6)	2,134 (53.4)	1,086 (38.0)	498 (28.4)	396 (17.9)	209 (9.8)
	대학이상	1,025 (41.9)	1,190 (29.8)	466 (16.3)	175 (10.0)	138 (6.3)	88 (4.1)
혼인상태	미혼	2,086 (84.6)	1,473 (36.4)	306 (10.6)	85 (4.8)	25 (1.1)	15 (0.7)
	유배우	285 (11.6)	1,763 (43.6)	1,726 (59.7)	1,208 (67.9)	1,509 (67.6)	980 (45.2)
	이혼	84 (3.4)	753 (18.6)	730 (25.3)	347 (19.5)	187 (8.4)	65 (3.0)
	사별	10 (0.4)	58 (1.4)	129 (4.5)	139 (7.8)	512 (22.9)	1,107 (51.1)
직업	관리자	19 (0.8)	106 (2.6)	79 (2.7)	27 (1.5)	20 (0.9)	8 (0.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4 (4.6)	237 (5.8)	140 (4.8)	53 (3.0)	11 (0.5)	5 (0.2)
	사무종사자	327 (13.2)	486 (12.0)	211 (7.3)	46 (2.6)	16 (0.7)	7 (0.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216 (8.8)	510 (12.5)	382 (13.2)	162 (9.1)	53 (2.4)	9 (0.4)
	농림어업종사자	21 (0.9)	95 (2.3)	169 (5.8)	187 (10.5)	399 (17.8)	328 (15.1)
	기능원/ 기능종사자	40 (1.6)	173 (4.3)	113 (3.9)	47 (2.6)	11 (0.5)	1 (0.0)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17 (0.7)	89 (2.2)	62 (2.1)	34 (1.9)	4 (0.2)	2 (0.1)
	단순노무 종사자	46 (1.9)	160 (3.9)	157 (5.4)	91 (5.1)	75 (3.4)	35 (1.6)
	학생/가사/무직	1,504 (60.9)	2,043 (50.2)	1,484 (51.2)	1,088 (61.0)	1,586 (70.9)	1,723 (79.4)
	미상(군인병사 제외)	164 (6.6)	167 (4.1)	102 (3.5)	49 (2.7)	61 (2.7)	52 (2.4)

구분	특성	एको세대	포스트부머세대	베이비붐세대	F세대	전기노인세대	후기노인세대
사망원인	살충제	60 (2.4)	301 (7.4)	438 (15.1)	352 (19.7)	709 (31.7)	718 (33.1)
	목매달림	1,381 (56.0)	2,323 (57.1)	1,613 (55.6)	978 (54.8)	1,012 (45.3)	951 (43.8)
	투신	456 (18.5)	557 (13.7)	376 (13.0)	210 (11.8)	266 (11.9)	299 (13.8)
	기타	571 (23.1)	885 (21.8)	472 (16.3)	244 (13.7)	249 (11.1)	202 (9.3)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1년) 자료

〈표 2〉 2011년 세대별 지역별 자살률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구분		एको세대	포스트부머세대	베이비붐세대	F세대	전기노인세대	후기노인세대	계
전체	서울	22.2	28.9	32.2	37.5	51.5	92.7	32.8
	부산	28.2	36.4	38.6	38.8	57.4	80.5	39.3
	대구	24.8	30.2	37.2	48.8	57.0	82.0	36.9
	인천	25.9	34.3	41.6	57.9	68.4	100.5	40.9
	광주	24.9	26.5	32.2	38.2	55.2	72.8	32.4
	대전	23.9	34.5	36.7	38.6	57.2	99.4	36.7
	울산	25.8	30.1	36.0	35.4	53.5	74.5	33.6
	경기도	22.2	30.4	41.8	49.0	70.3	118.6	38.6
	강원도	31.3	42.6	59.7	61.0	77.6	143.8	57.2
	충북	23.5	40.0	52.0	52.4	83.8	113.3	49.2
	충남	25.2	38.4	51.2	57.3	98.1	151.3	55.3
	전북	30.3	34.0	52.3	51.9	67.4	98.1	48.2
	전남	32.0	33.5	44.0	46.8	59.8	77.0	45.4
	경북	28.5	38.9	43.9	40.3	61.2	77.4	43.7
	경남	24.3	36.3	42.3	48.6	63.3	76.5	41.1
	제주도	28.8	35.2	39.6	41.4	74.1	76.6	42.0
남자	서울	26.3	40.7	50.8	56.5	82.9	148.3	46.4
	부산	30.0	47.6	60.5	65.3	90.3	138.3	54.7
	대구	24.1	37.3	56.0	75.4	86.9	129.8	48.3
	인천	30.9	44.1	62.8	81.2	110.3	149.3	54.8
	광주	30.4	34.9	53.3	59.3	75.6	95.5	43.8
	대전	28.5	45.4	53.4	56.8	91.2	137.2	48.6
	울산	29.4	35.6	55.7	60.4	80.7	152.4	45.2
	경기도	25.8	40.5	58.4	74.2	113.8	199.6	52.3
	강원도	33.4	53.0	85.7	102.8	123.9	230.2	76.8
	충북	28.1	55.2	80.4	77.8	143.4	210.0	70.9
	충남	31.3	50.1	66.4	93.1	162.4	246.8	74.9
	전북	40.1	50.7	84.0	90.8	112.9	195.8	74.6
	전남	39.5	47.8	61.4	73.3	85.5	141.4	63.8
	경북	33.2	56.2	67.1	60.8	95.8	130.6	61.6
	경남	26.3	47.4	60.5	82.4	115.0	142.6	57.5
	제주도	22.5	45.3	53.4	54.5	126.7	160.4	54.6

20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구분	에코세대	포스트부머세대	베이비붐세대	F세대	전기노인세대	후기노인세대	계	
여자	서울	18.1	16.9	15.0	19.9	23.0	61.2	19.9
	부산	26.3	25.3	18.1	14.0	29.3	51.1	24.8
	대구	25.7	23.3	18.7	24.3	33.4	56.9	26.1
	인천	20.5	23.9	19.3	34.5	33.7	75.8	26.9
	광주	19.2	18.1	11.2	18.5	38.0	61.0	21.4
	대전	18.8	23.6	19.9	20.6	28.6	79.2	24.9
	울산	21.4	24.3	14.5	8.0	29.8	40.7	21.3
	경기도	18.2	19.9	23.9	24.6	34.5	74.0	24.8
	강원도	28.6	31.5	32.5	21.6	39.7	96.2	37.6
	충북	18.2	23.7	21.8	27.9	36.2	61.9	27.6
	충남	17.9	24.9	34.5	22.4	46.8	96.1	35.1
	전북	19.1	16.6	20.3	15.7	32.6	47.1	23.3
	전남	22.9	17.6	25.9	21.9	40.6	45.0	28.1
	경북	22.7	20.3	20.0	21.0	35.1	49.7	26.2
	경남	21.8	24.3	23.0	16.1	25.0	45.0	24.6
	제주도	35.6	24.4	25.1	28.8	30.6	42.2	29.8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1년) 자료

〈표 3〉 2011년 세대별 월별 자살자 수

(단위: 명, %)

구분		에코세대	포스트부머 세대	베이비붐 세대	F세대	전기노인 세대	후기노인 세대	계
전체	1월	141 (5.7)	272 (6.7)	192 (6.6)	110 (6.2)	96 (4.3)	115 (5.3)	926 (5.9)
	2월	172 (7.0)	284 (7.0)	192 (6.6)	119 (6.7)	138 (6.2)	149 (6.9)	1,054 (6.7)
	3월	195 (7.9)	311 (7.6)	230 (7.9)	140 (7.8)	183 (8.2)	192 (8.8)	1,251 (8.0)
	4월	218 (8.8)	366 (9.0)	266 (9.2)	175 (9.8)	211 (9.4)	185 (8.5)	1,421 (9.1)
	5월	244 (9.9)	439 (10.8)	291 (10.0)	153 (8.6)	255 (11.4)	246 (11.3)	1,628 (10.4)
	6월	269 (10.9)	417 (10.3)	310 (10.7)	171 (9.6)	225 (10.1)	198 (9.1)	1,590 (10.2)
	7월	244 (9.9)	346 (8.5)	265 (9.1)	165 (9.2)	210 (9.4)	201 (9.3)	1,431 (9.2)
	8월	225 (9.1)	401 (9.9)	267 (9.2)	162 (9.1)	216 (9.7)	217 (10.0)	1,488 (9.5)
	9월	212 (8.6)	326 (8.0)	245 (8.5)	167 (9.4)	188 (8.4)	208 (9.6)	1,346 (8.6)
	10월	206 (8.3)	327 (8.0)	224 (7.7)	146 (8.2)	204 (9.1)	187 (8.6)	1,294 (8.3)
	11월	180 (7.3)	292 (7.2)	221 (7.6)	146 (8.2)	179 (8.0)	151 (7.0)	1,169 (7.5)
	12월	162 (6.6)	285 (7.0)	196 (6.8)	130 (7.3)	131 (5.9)	121 (5.6)	1,025 (6.6)

구분		예코세대	포스트부머 세대	베이비붐 세대	F세대	전기노인 세대	후기노인 세대	계
남자	1월	86 (5.8)	186 (6.7)	136 (6.3)	80 (5.9)	73 (4.5)	63 (4.9)	624 (5.8)
	2월	110 (7.4)	190 (6.8)	154 (7.1)	93 (6.8)	95 (5.9)	86 (6.7)	728 (6.8)
	3월	112 (7.5)	210 (7.5)	172 (7.9)	104 (7.7)	131 (8.1)	114 (8.9)	843 (7.9)
	4월	125 (8.4)	252 (9.0)	197 (9.1)	134 (9.9)	161 (9.9)	105 (8.2)	974 (9.1)
	5월	146 (9.8)	295 (10.6)	217 (10.0)	114 (8.4)	187 (11.5)	142 (11.1)	1,101 (10.3)
	6월	154 (10.3)	275 (9.9)	229 (10.6)	136 (10.0)	164 (10.1)	119 (9.3)	1,077 (10.1)
	7월	149 (10.0)	241 (8.6)	198 (9.1)	129 (9.5)	143 (8.8)	124 (9.7)	984 (9.2)
	8월	130 (8.7)	271 (9.7)	202 (9.3)	118 (8.7)	154 (9.5)	125 (9.8)	1,000 (9.3)
	9월	135 (9.1)	233 (8.4)	191 (8.8)	122 (9.0)	132 (8.1)	115 (9.0)	928 (8.7)
	10월	118 (7.9)	228 (8.2)	157 (7.2)	110 (8.1)	142 (8.8)	122 (9.6)	877 (8.2)
	11월	116 (7.8)	213 (7.6)	168 (7.7)	118 (8.7)	134 (8.3)	84 (6.6)	833 (7.8)
	12월	110 (7.4)	194 (7.0)	147 (6.8)	100 (7.4)	104 (6.4)	77 (6.0)	732 (6.8)
여자	1월	55 (5.6)	86 (6.7)	56 (7.7)	30 (7.0)	23 (3.7)	52 (5.8)	302 (6.1)
	2월	62 (6.3)	94 (7.4)	38 (5.2)	26 (6.1)	43 (7.0)	63 (7.0)	326 (6.6)
	3월	83 (8.5)	101 (7.9)	58 (7.9)	36 (8.5)	52 (8.4)	78 (8.7)	408 (8.3)
	4월	93 (9.5)	114 (8.9)	69 (9.4)	41 (9.6)	50 (8.1)	80 (8.9)	447 (9.1)
	5월	98 (10.0)	144 (11.3)	74 (10.1)	39 (9.2)	68 (11.0)	104 (11.6)	527 (10.7)
	6월	115 (11.8)	142 (11.1)	81 (11.1)	35 (8.2)	61 (9.9)	79 (8.8)	513 (10.4)
	7월	95 (9.7)	105 (8.2)	67 (9.2)	36 (8.5)	67 (10.9)	77 (8.6)	447 (9.1)
	8월	95 (9.7)	130 (10.2)	65 (8.9)	44 (10.3)	62 (10.1)	92 (10.3)	488 (9.9)
	9월	77 (7.9)	93 (7.3)	54 (7.4)	45 (10.6)	56 (9.1)	93 (10.4)	418 (8.5)
	10월	88 (9.0)	99 (7.7)	67 (9.2)	36 (8.5)	62 (10.1)	65 (7.3)	417 (8.5)
	11월	64 (6.6)	79 (6.2)	53 (7.3)	28 (6.6)	45 (7.3)	67 (7.5)	336 (6.8)
	12월	52 (5.3)	91 (7.1)	49 (6.7)	30 (7.0)	27 (4.4)	44 (4.9)	293 (6.0)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1년) 자료

〈표 4〉 2011년 세대별 요일별 자살자 수

(단위: 명, %)

구분		예코세대	포스트부머세대	베이비붐세대	F세대	전기노인세대	후기노인세대	계
전체	월요일	374 (15.2)	689 (16.9)	456 (15.7)	259 (14.5)	337 (15.1)	343 (15.8)	2,458 (15.7)
	화요일	356 (14.4)	638 (15.7)	425 (14.7)	272 (15.2)	358 (16.0)	326 (15.0)	2,375 (15.2)
	수요일	356 (14.4)	604 (14.9)	437 (15.1)	259 (14.5)	294 (13.1)	297 (13.7)	2,247 (14.4)
	목요일	352 (14.3)	569 (14.0)	449 (15.5)	267 (15.0)	319 (14.3)	304 (14.0)	2,260 (14.5)
	금요일	371 (15.0)	541 (13.3)	393 (13.6)	259 (14.5)	348 (15.6)	294 (13.5)	2,206 (14.1)
	토요일	319 (12.9)	502 (12.3)	353 (12.2)	228 (12.8)	285 (12.7)	325 (15.0)	2,012 (12.9)
	일요일	340 (13.8)	523 (12.9)	386 (13.3)	240 (13.5)	295 (13.2)	281 (12.9)	2,065 (13.2)
남자	월요일	237 (15.9)	459 (16.5)	342 (15.8)	206 (15.2)	236 (14.6)	205 (16.1)	1,685 (15.7)
	화요일	233 (15.6)	429 (15.4)	329 (15.2)	217 (16.0)	265 (16.4)	187 (14.7)	1,660 (15.5)
	수요일	218 (14.6)	418 (15.0)	336 (15.5)	199 (14.7)	208 (12.8)	188 (14.7)	1,567 (14.6)
	목요일	203 (13.6)	391 (14.0)	332 (15.3)	201 (14.8)	233 (14.4)	175 (13.7)	1,535 (14.3)
	금요일	219 (14.7)	382 (13.7)	288 (13.3)	196 (14.4)	265 (16.4)	163 (12.8)	1,513 (14.1)
	토요일	180 (12.1)	339 (12.2)	250 (11.5)	162 (11.9)	187 (11.5)	192 (15.0)	1,310 (12.2)
	일요일	201 (13.5)	370 (13.3)	291 (13.4)	177 (13.0)	226 (14.0)	166 (13.0)	1,431 (13.4)
여자	월요일	137 (14.0)	230 (18.0)	114 (15.6)	53 (12.4)	101 (16.4)	138 (15.4)	773 (15.7)
	화요일	123 (12.6)	209 (16.4)	96 (13.1)	55 (12.9)	93 (15.1)	139 (15.5)	715 (14.5)
	수요일	138 (14.1)	186 (14.6)	101 (13.8)	60 (14.1)	86 (14.0)	109 (12.2)	680 (13.8)
	목요일	149 (15.3)	178 (13.9)	117 (16.0)	66 (15.5)	86 (14.0)	129 (14.4)	725 (14.7)
	금요일	152 (15.6)	159 (12.4)	105 (14.4)	63 (14.8)	83 (13.5)	131 (14.7)	693 (14.1)
	토요일	139 (14.2)	163 (12.8)	103 (14.1)	66 (15.5)	98 (15.9)	133 (14.9)	702 (14.3)
	일요일	139 (14.2)	153 (12.0)	95 (13.0)	63 (14.8)	69 (11.2)	115 (12.9)	634 (12.9)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1년) 자료